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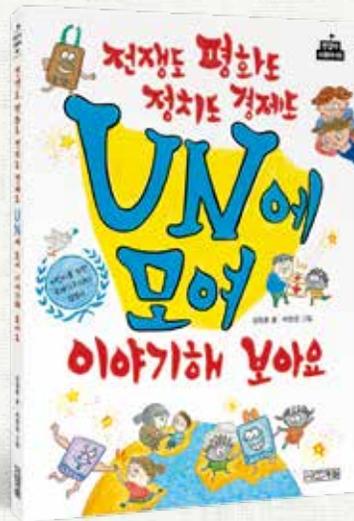
# 전쟁도 평화도 정치도 경제도 UN에 모여 이야기해 보아요

---



강창훈 글 | 허현경 그림 | 148쪽

- 4학년 2학기 사회 3. 지역 사회의 발전
-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국제연합(UN)은 제1·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 태어난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이 193개 나라이고 일하는 사람만 12만 명에 달한다. 북한은 160번째, 우리나라는 161번째 회원국이다. 국제연합(UN)에 대해 자주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고, 국제 무대에서 일하니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제연합(UN)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을 보면 국제연합(UN)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날 낱이 알 수 있다.

## ( 학습 목표 )

국제기구는 두 나라 이상만 모이면 꾸릴 수 있다. 전 세계에 국제기구가 240개쯤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회원국 수가 가장 많은 국제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국제기구가 국제연합(UN)이다. 우선 국제연합(UN)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구들을 알아본다. 국제연합(UN)은 사무국 아래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가 있고, 전문 기구와 독립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기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두 나라 간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연합(UN)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쟁을 멈추게 하는지 알아보자.

-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UN)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 국제연합(UN)의 여러 조직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일을 알아본다.
- 다국적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 ‘핵확산금지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인 세계은행이 하는 일을 살펴본다.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하는 일을 알아본다.
- 유네스코가 하는 일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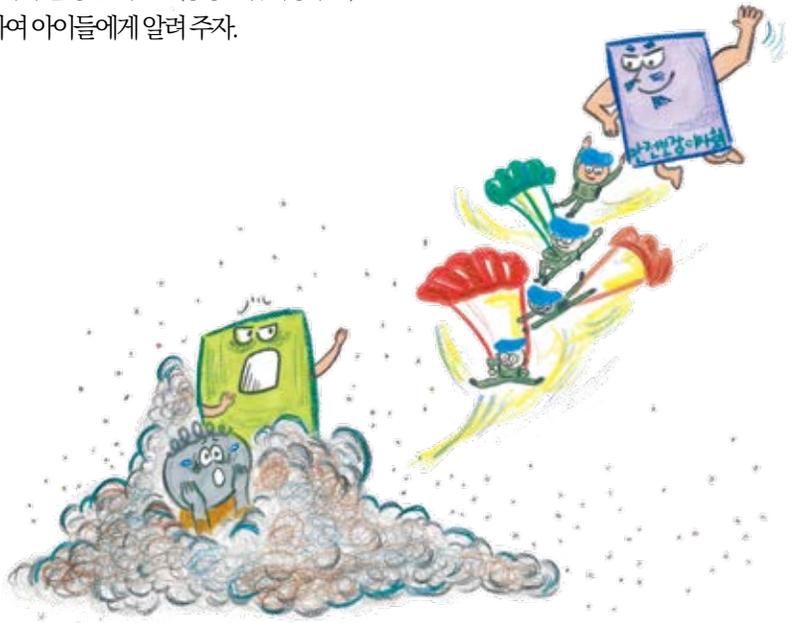


## ( 독전 활동 )

###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의 '사스' 바이러스 대처 알아보기

'아주 위험한 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사스)은 2002년 11월 중국 광둥 지역에서 발생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캐나다에 퍼졌고 급기야 온 세계로 퍼진 증후군이다. 이 병은 심하게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병인데, 이 병이 발생한 2002년 11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마지막 남은 사스 위험 지역이었던 대만을 위험 지역에서 해제한 2003년 7월 5일까지, 모두 서른 나라에서 8439명이 이 병을 앓았고, 이 가운데 812명이 죽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29일 첫 의심 환자가 나왔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환자 4명, 사망자 0명에 그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 ➔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을 조사해 보자.
- ➔ 2002년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알아보자.
- ➔ 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아보자.
- ➔ 선생님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여 아이들에게 알려 주자.





▶ 선생님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 지구촌에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세균성 질병일 것이다. 제1·2차 세계 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서 생겨난 세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년)이 끝날 무렵 2100만 명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이었다.

옛날 유럽을 휩쓴 전염병 역사를 살펴보면, 13세기에는 나병, 14세기에는 흑사병,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는 매독, 17세기부터 18세기에는 천연두, 19세기에는 결핵과 콜레라가 들끓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에이즈가 사람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사스는 주로 '아주 작은 침방울'로 옮는다. 사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또 말을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이 병을 옮긴다. 사스 환자가 발생하면 모두 마스크를 껴야 한다. 그리고 걸렸다면 보통 2~10일 사이에 병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치료약이 없다. 이 병이 언제까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학자들은 옛날에도, 지금도, 언제나 이와 같은 균이 있었고, 한때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저절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 균도 머지않아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사스 병의 원인 균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코로나'는 '고리 모양의 빛'을 뜻하는데, 이 바이러스 모양이 반지 모양이고, 또 그 둘레가 빛을 내는 듯 보여 이렇게 이름 붙었다. 이 바이러스는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로,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게 사스 병의 병원체로 밝혀진 것이다! 학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 변신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동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병원균을 찾아내고, 그 전염 경로까지 찾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병원균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 ( 독후 활동 )

우리나라는 과연 물 부족 국가인가?

- ▶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지 묻는다.
- ▶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지 조사해 발표하게 한다.
- ▶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홍보를 하는지 조사하게 한다.



▶ 선생님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든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바쁘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한 사설 연구 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1990년에 내놓은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런데 마치 이 연구소가 국제기구(UN) 연구 기관인 양 말하고, 국제기구(UN)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경 시민 단체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국제기구(UN)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설 연구소이다. 또 이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인구 증가에 따라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일 뿐이다. 더구나 이 연구소의 200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는 물 풍요 국가에 들어가 있다. 연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2006년 유네스코와 여러 국제기구(UN) 기관이 함께 연 세계 물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물 빈곤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사정은 147나라 가운데서 43번째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물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